

보사위

질의

○: 光州 환경지
청(지청장 朴鍾健)

에 대한 감사에서 朴英淑의원(平民)은 환경당국은 현행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의 안전에 관한것은 과기처에서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금번 환경관계법 전면개정때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항중 주변부
 500미터 이내의 주민이 대대로 살아
 의 원전중 全南서해안지역에 무
 러 32기의 원전이 설치될 예정이
 며 이미 용노반경고시까지 진행
 중이라는 사실을 光州환경지청에
 서 알고 있는가? 라고 추궁.
 朴의원은 "국민이 대대로 살아
 갈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
 청으로서 는 이처럼 위험한 원전
 추가건설계획을 저지하는 것이
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명을 다하
 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청장
 은 원전과대응물의 안전설 용의
 는 없는가? 라고 질문.